

#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성과 공유회 개최

## 입주기업 간 교류·성과 확산 본격 추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2025년 12월 2일 대전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입주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성과 확산을 위한 '2025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제시, 상주시, 실증단지 입주기업 등 약 80명이 참석해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실증단지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돌아보

고 향후 5년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농업용 로봇, 복합환경제어기 등 다양한 스마트팜 기술과 제품을 실제 농업환경에서 시험·검증하는 테스트 공간으로, 기업이 기술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현장 중심형 지원체계다.

농진원은 2021년부터 전북 김

제와 경북 상주 두 곳에 실증단지를 조성해 국내 스마트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와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한 실증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왔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실증단지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소개하는 성과 공유세션 ▲스마트농업 융합기술을 주제로 한 인공지능 전환(AI, Agri Transformation) 혁신사례 교육 ▲농진원의 차년도 사업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2025년 실증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입주기업을 격려하

기 위해 실증결과서 전달식이 마련되었으며, 김제·상주 실증단지에서 선정된 4개 기업에 대표 실증성과가 공식 전달됐다.

또한 농진원은 실증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증단지에 입주한 40여 개 기업의 현장 의견과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

김제 실증단지 입주기업 SSL의 장영원 대표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의 최신 흐름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실증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 검증 경험이 앞으로 제품 고도화와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진원 구본근 부원장은 "지난 5년간 실증단지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의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왔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5년 역시 입주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인공지능 기술 전환 중심의 농정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성과 공유회 개최(농진원 제공)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 농어촌공사, 'K-농촌관광' 매력 전 세계에 알렸다

## 2천여 건 콘텐츠·330만 회 확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29일 '2025년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또바기팍죽)' 해단식을 열고 7개월간 이어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포터즈는 지난 5월 14개국 20명의 인플루언서(총 팔로워 92만 명)로 출범해 전국 9개 농촌 여행을 방문하며 한국 농촌의 다양한 매력을 국내외에 소개해왔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활동을 성실히 완수한 19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플루언서 4명에게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각각 전달됐다. 서포터즈는 공사가 준비한 9회의 농촌여행 프로그램과 더불어 '의식 농촌크리에이티브' 등 관계기관 행사에도 참여하며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들이 SNS에 업로드한 농촌여행 게시물은 총 2,148건에 달하고, 국내외에서 약 330만 회 이상 확

산되는 등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외국인의 시선에서 담아낸 농촌 체험 콘텐츠는 글로벌 팬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경기 가평 '잣 향기 푸른마을'에서의 엔티(MT) 문화 체험은 76만 회의 상호작용을 기록했으며, 강원 양양 '38 평화마을'에서의 여름 서핑 체험은 75만 회의 반응을 얻어 한국 농촌이 제공하는 색다른 경험을 자연

스럽게 소개했다.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도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유치를 기념해 호주 출신 인플루언서 '챔보(Chambo)'와 제작한 '5만 원 드리면' 시리즈는 조회 수 82.6만 회를 기록하며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경주 세심마을에서 한국 음식 만들기과 한우 소갈비찜 먹방을 담은 이 영상은 농촌 미식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농어촌공사는 지난 29일 '2025년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또바기팍죽)' 해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농정원 '나의 성공 파트너, 귀농닥터!' 공모전 개최

## 현장밀착형 멘토링 기반 실제 사례 발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은 '현장 밀착형 귀농닥터' 서비스의 긍정적 성과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나의 성공 파트너, 귀농닥터!' 2025년 귀농닥터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귀농닥터 멘토링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교육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정착 스토리를 널리 알려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귀농닥터 멘토링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야기'이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귀농닥터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있는 멘티(교육생)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귀농닥터의 지원을 기반으로 품목 기술, 경영 노하우, 현지 생활 적응 등 초기 정착

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ऐसे이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귀농귀촌 그

린대로'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A4 3매 이내의 수기 및 멘토링 활동사진 등을 첨부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 규모는 총 150만 원이다. 최우수상(1명, 50만 원)과 우수상(2명, 각 30만 원), 장려상(2명, 각 20만 원) 등 총 5명의 수상자에게 은농리상품권이 수여된다.

심사 결과는 12월 마지막 주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린대로' 공지사항 게시와 함께 개별 안내도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산 포도, 18년 만에 필리핀 수출길 열었다

## 대 필리핀 한국산 포도 수출 검역협상 최종 타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007년부터 이어져 온 필리핀과의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검역협상이 11월 25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검역본부는 한국산 포도의 수출을 위해 필리핀 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필리핀으로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의 검역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검역본부는 필리핀과 합의한 검역요건을 반영한 고시를 제정하고, 맞춤형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산 포도는 대만, 미국 등으로의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품목으로 케이(K)-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필리핀에서도 큰 인기가 예상되며, 동남아 시장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타결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상 타결로 필리핀으로 수출이 가능한 한국산 농산

물은 사과, 배, 단감, 양파, 감귤, 파프리카, 딸기를 포함하여 총 8품목으로 확대됐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초고성능컴퓨터 원격 접속”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서 상 받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동준 연구사가 개인용 컴퓨터에서 초고성능컴퓨터(HPC)에 원격 접속해 농생명 빅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그로믹소(AgrOmic-So)' 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으

로 지식재산처장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12월 3일 열린 2025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개막식에서 진행됐다.

'아그로믹소(AgrOmic-So)'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돼 연구자가 일반 PC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를 자동으로 농촌진흥청 초고성능 컴퓨터로 전송해 신속하게 분석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전체별 변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3종의 유전형 분석 기능을 갖췄으며,

복잡한 슈퍼컴퓨터 환경에 비속려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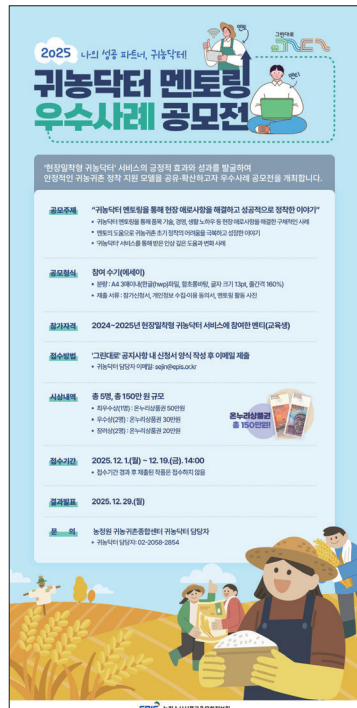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기존 분석 환경이 오픈소스 조합과 수작업 중심이었었던 것과 달리, 이번 기술은 소켓 통신 기반의 독창적 구조로 기술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 농축환경신문

1998년 10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 06693

(0407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  
기사제보 전화: 02-582-4016 팩스: 02-582-4002  
광고신청 전화: 02-582-4016  
이 메 일 press@nonguplimes.com  
홈페이지 www.nonguplimes.com  
자 매 지 농업경제  
발행간편면  
편집장 | 편집국장 김대경 | 인쇄인 이정자  
구독신청·배달안내 02-582-4016  
구독료 월 8,000원 / 년 96,000원  
농축환경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기까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